

번호: OP-G-003					
제 목	추적관찰을 통한 농촌 노인의 인지기능변화와 관련요인 Change of Cognitive Function and Its Related Factors of the Rural Elderly through a 5 Year Follow-up				
저 자 및 소 속	김상규, 강복수, 황태운, 사공준, 이경수, 박종서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실				
분 야	의료관리 [노인보건]	발 표 자	김상규 일반회원	발 표 형 식	구 연
<p>목적: 동일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MMSE-K를 이용하여 5년간 인지기능 변화와 인지기능장애 발생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.</p> <p>방법: 1998년 2월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1개 보건진료소 사업지역내의 65세 이상 노인 215명을 대상으로 1차조사를 실시한 후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 176명을 대상으로 5년간의 추적기간 후 사망 36명, 이사 9명을 제외한 136명을 대상으로 2004년 4월부터 6월말까지 동일한 조사자가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.</p> <p>결과: 65세 이상 정상 노인들에서는 인지기능 점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($p < 0.05$) 5년 뒤 70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. 65세 이상 정상 노인들의 인지기능 평균점수는 27.2점에서 5년 뒤 25.6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($p < 0.01$) 관련요인별로도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에서 변화가 적었으며, 생활비가 많은 노인들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. 정상 노인들에서 연간 중증 인지기능장애 발생률은 1.18%였고 5년 뒤 인지기능 장애 발생률은 연령, 교육수준, 생활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.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, 초기 인지기능 점수가 낮을수록, 사회적 지지도가 낮을수록 5년 뒤 인지기능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았다($p < 0.05$).</p> <p>정상 노인들에 있어 연령이 5세 증가할 때 인지기능 점수가 1.01점 감소하였고, 연령이 높을수록, 교육수준이 낮을수록, 생활비가 낮을수록,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, 사회적 지지도가 낮을수록 많이 감소하고 만성질환 중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이 있는 노인에서 오히려 적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. 69세 이하의 노인들에서는 연령이 5세 증가할 때 인지기능 점수가 0.7점 감소하였고, 무배우자일수록, 생활비가 낮을수록, 사회적 지지도가 낮을수록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, 70세 이상 정상 노인들에서는 연령이 5세 증가할 때 인지기능 점수는 1.1점 감소하였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.</p> <p>결론: 추후 인지기능장애 발생률과 유병률을 예측하고, 인지기능장애 발생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.</p>					